

사설

조계종 종무 감사에 부쳐

2003년 조계종 종무행정 감사에서 우수 사찰로 선정된 조계사 등 5개 사찰의 업적을 보면 이제 사찰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 본래적 기능만이 아닌 사찰 나름의 특색화가 필요하며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케 한다.

그럼에도 불교 사찰의 특성화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그 발걸음이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

사찰이 불교의 종교적 기능을 우선하고 운영 방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는 일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신도교육 체계와 포교활동, 업무 체계화, 수행사찰의 위상 강화, 어린이 포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 등 사회문제를 불교적으로 접근,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 하는 것 역시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찰을 문화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하는 일 또한 이 시대 사찰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년이 넘는 전통문화와 고스란히 간직된 불교사찰과 이와 함께 잘 보존돼 온 자연은 이제 소중한 국민적 자산으로 이 땅의 문화 중심이 되기 위해 부촉함이 없다. 불교가 꺾박받던 조선시대에도 초파일 등 사찰 주변에 흥겨운 지역 축제와 문화마당이 펼쳐져 왔던 일을 상기하자.

사찰을 신도만이 아닌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그 공간을 박물관, 음악회, 무용, 미술전 등 지역 문화 예술 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다.

주 5일제 근로시행은 문화수도 확장을 의미한다. 앞으로 종무행정 감사에서는 이 점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평화선언’을 향해 한 걸음

정치적 혼돈과 사회 경제적 불안감이 날로 이어져 가는 이 시점에 가장 큰 문제가 우선하여 북한의 핵 관련이다. 통일이 우리의 최대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통일은커녕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 해도 남과 북이 평화와 행복을 고루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해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서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근 6자 회담 결과 도출된 방안에서 일부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자세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간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도주의와 같은 요란스런 구호만으로 포장된 민족적 패권의식에 사로 잡혀 혹 이 문제를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었는지

한번쯤 자성해 볼 시점이다.

최근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을 비롯한 6개국 종교인들이 모여 ‘6개국 종교인 평화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내 7개 종단회의 주요 관계자들이 숙의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물론 이 평화회의가 개최될 경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하는 평화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평화선언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정부간의 정치적 해석을 갖는다고 보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종교가 갖는 독특한 사회적 함축성에 미뤄볼 때 양면의 숨은 날이 서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산문제 정부 총출동 회유?

각종 기관,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 대상 “공사 재개 되도록 도와 달라” 전화·방문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 기관에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와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2월 2일 조계종 총무원 4층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참석한 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정부 기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교구

본사 주지 스님도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말해 정부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해 줬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3일 만해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에 따르면 회의가 열리기 수일 전부터 시장·군수와 경찰서장, 국가정보원 직원, 문화관광부 직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 달라는 요지로 본사 주지스님들을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한 주지스님은 ‘국정원 사람이 찾아와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크다.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며 “불교환경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회유하고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행자부·경

찰청·문광부·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교계 회유·압력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 △참여정부는 불교계 회유·압력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2일 교구본사주지회의의 회의장에서 열린 스님(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등 불교환경연대 관계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주지스님들에게 북한산 관련 성명서와 포스터를 나눠주며 북한산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종무행정우수 5사찰 법장스님, 표창 수여

2003년도 종무행정 감사(이하 종정감사)에서 우수 사찰로 선정된 조계사, 법주사 등 5개 사찰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12월 2일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종정감사에서 조계사는 신도교육체계 및 포교활동에서, 법주사는 말사관리를 위한 업무 체계화에서, 내소사는 수행사찰로서의 사찰위상 강화에서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내원사는 천성산 수행환경과 생태계보전 노력, 은적사는 지역 어린이 포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명우 기자

월운스님, 포교대상 수상 평생을 역경·후학 양성에

경전변역과 후학 양성에 평생 바쳐온 동국대학교 월운(사진) 스님이 제15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포교원은 대상(종정상)에 봉선사 조실이자 동국대역원장인 월운 스님이, 공로상(총무원장상)에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이 선정됐다고 12월 2일 발표했다.

안동 대원사 주지 정우 스님 등 8명이 월려상(포교원장)을 수상하게 됐으며, 서재영(동국대 강사)은 인터넷 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다. 권형진 기자

불교정보화협, 18일 定總내년도 사업계획 등 논의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는 제2차 정기총회를 12월 18일 낮 12시 서울 인사동 명성식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울 사업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작년 11월 5일 창립, 울 한 해 동안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전국 7개 도시에서 실시해 100여 명의 스님들이 컴퓨터 기초 및 중급과정을 교육받았다. 또 협의회는 지난 5월 21일 현대불교신문사가 주관한 ‘불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만남’을 후원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사업부 설치 등 종단발전 모색”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의견 나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북한산 문제를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 종단의 재정 자립을 위해 사업부 신설도 요청했다.

12월 2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본사 주지스님들은 “(정부와 마찰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종정스님의 말씀도 계셨고 정부와 계속해 협의를 하고 있다. 곧 풀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본사 주지스님들께서 이 문제를 위임해 달라”는 법장 스님의 요청에 따라 북한산 문제를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과 화엄사 주지 명섭 스님은 “종단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종단 사업부 신설 의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조직단위 끝나는 내년 2월쯤 사업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8년 별반사 사면문제와 관련해 법장 스님은 “행정조치로 해결하러다 종헌 개정 의지를 밝혔는데 원장이 소신이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법으로 행정으로 따지면 98년에는 법이 없고 행정만 있어 문제가 생겼나”라고 반문한 뒤 “때로는 돌아가는

무비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사임 건강상 이유, 정산스님 직무대행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12월 1일 건강상 이유로 물러났다. 지난 7월말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무비 스님은 이날 오전 출근해 교육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무비 스님은 “종단 현안이 밀려있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물러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승가교육에 뜻을 두어 교육원장직을 맡았는데, 많이 아쉽고 섭섭하다는 퇴임의 변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교육원장 직무 대행

은 교육부장 정산 스님이 맡게 된다. 임기 5년의 교육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중앙총회에서 선출된다.

탄허 스님의 강박을 이은 무비 스님은 통도사, 범어사 강주와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등을 지냈고 단일계단과 승가고시를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중앙총회 부의장, 고시위원장 등을 거쳐 2001년 9월부터 교육원장직을 맡아왔다.

권형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韓國佛敎 太古宗 宗團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第十六世 宗正 德菴 大宗師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11월 22일 涅槃하신 本宗 第16世 宗正 德菴 큰스님의 葬禮式은 宗團內外의 人士를 비롯한 四部大衆이 同參한 가운데 莊嚴하고 如法하게 宗團葬으로 奉行하였습니니다.

수番 葬禮期間에 殯所를 찾아주시고 弔電을 表해주시신 諸徒를 비롯한 四部大衆 여러분께 깊이 感謝를 드리며, 弔花와 弔電을 보내주시고 또한 永訣式에 직접오시어 弔辭를 해주신 各界 代表께 甚深한 謝意를 表합니다.

仙巖寺 茶毗場까지 同行하여 주신 宗徒여러분에게 거듭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太古宗은 앞으로 涅槃하신 德菴 宗正 큰스님의 遺志를 받들어 歷史와 傳統을 繼承하는 正統 宗團으로서의 責務를 다하여 宗團과 佛敎發展에 恒중 더 邁進할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人事를 드려야 마땅한 道理인줄 아오나 慌忙中에 우선 紙面을 통해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惠諒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11월 27일

初齋 : 11월 28일 오전 10시
불이성 법륜사

二齋 : 12월 5일 오전 10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을 진암3리 무량사 (011-788-4026)

三齋 :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마산시 합포구 고방동 원각사 (055-243-7427)

四齋 : 12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사 (064-762-7489)

五齋 : 12월 26일 오전 10시
부산시 동구 좌천4동 불정사 (051-632-5582)

六齋 : 2004년 1월 2일
장소 미정

四十九齋 : 1월 9일 오전 10시
불이성 법륜사

韓國佛敎太古宗 總務院長 李雲山

德菴門徒會 代表 崔慧草